

교환학생 보고서 - 컴퓨터공학부 16학번 강지용

FHNW - Fachhochschule Nordwestschweiz,
Switzerland 

2019.09.02-2020.02.14

1. 교환학생 지원 과정

1.1. 지원 동기

2학년 말부터 교환학생에 관심을 조금 가졌었는데 막상 하려니 준비해야 하는 서류나 언어 성적 등의 절차들이 너무 복잡해 보였고 어느 나라의 어떤 학교로 갈지, 이후 생활 및 졸업은 어떻게 할지 등의 고민들이 지원을 망설이게 했다. 그러다 4학년 2학기가 되었음에도 교환학생을 결정하게 된 이유는 틀 안의 반복되는 일상에서 잠깐 벗어나 삶에 강한 새로움을 더해보고자 함이 컸다. 솔직히 말해서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새로움을 찾았다기 보다는 그저 막연하게 새로운 무언가를 통해 변화가 필요함을 느꼈기 때문이었다. 군대 및 전문연구원 문제, 졸업 및 이후의 문제 등 크고 작은 고민거리들로 머릿속이 다소 복잡한 상황이었고 혼자 시간을 가지며 그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정리하고 싶은 목적도 있었다.

1.2. 나라 선택

스위스라는 나라를 선택한 첫 번째 이유는 다름 아닌 아름다운 산과 호수들이었다. 예전에 유럽 여행을 하며 스위스에서 패러글라이딩을 하며 Interlaken이라는 곳의 풍경을 하늘에서 본 적이 있는데, 그 때의 충격이 이번 선택에 크게 작용한 것 같다. 더욱이 등산을 좋아하는 필자에게 정말 최고의 나라였다.

두 번째 이유로는 독일어를 듣고싶다. 학교에서 초급독일어 수업을 듣고 꽤 흥미를 느껴 더 공부하고싶었고 그래서 교환학생을 가려고 할 때 독일어권 나라인 독일과 오스트리아도 관심을 가졌었다. 하지만 독일어 외에도 다양한 언어에 관심이 많았기에 공식 언어가 4개면서 영어도 잘 한다는 스위스가 아주 매력적이었다. 그런데 교환학생 지원 이후 알게된 사실이지만 스위스에서는 조금 다른 독일어를 사용한다. 언어 관련해서는 이후 좀 더 자세하게 다루겠다.

마지막으로 스위스는 유럽에서 비교적 중심에 자리하고 있어 주변 유럽 국가들을 여행하기에도 좋을 것이라는 생각이 작용했다. 한국에서 오려면 정말 멀고 돈이 많이 들지만 스위스에 지내는 동안 유럽을 여행한다면 시간과 돈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

1.3. 학교 선택

솔직히 말해서 컴퓨터공학부 학생으로서 스위스 했을때 생각나는 학교는 취리히 공대라고 알려진 ETH Zürich였고, 1지망 학교였다. 그러나 TOEFL 성적이 이 대학에서 요구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했고 (영어 성적이 높았더라도 갈 수 있었을지는 모르겠다) 2지망으로 신청했던 FHNW라는 학교로 가게 되었다. 애초에 학업이 주된 목적이 아니었고 FHNW는 공대 뿐만 아니라 생명과학, 경영, 예술 등 다양한 과를 가진 대학이었기에 새로운 경험을 하기에 더욱 좋은 기회라고 여겨 기쁜 마음으로 올 수 있었다.

1.4. 서류 준비

공대 주관 교환학생 추가모집으로 신청했는데, 신청 자체에 필요한 서류는 거의 없었다. 간단한 지원동기와 희망 학교 등을 온라인으로 제출, 신청하면 됐다. FHNW 학교로 배정받은 이후에는 상대학교 측에서 필자의 영어 점수만으로는 학교에서 수업 및 프로젝트를 어느 정도까지 참여할 수 있을지 판단하기 어렵다며 추가로 온라인 영어시험을 볼 것을 요구했다. 약 30분정도 걸리는 어렵지 않은 시험이었으나 그것으로도 부족했는지, Skype 화상 통화를 하자고 해서 스위스에서는 이른 아침인 한국의 오후 3시 경에 영어 인터뷰도 진행했다. 영어로 간단히 자기 소개를 하고 무엇을 공부하며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영어로 수업을 듣거나 프로젝트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지 등을 물어보셨다. 마침내 모든 수업 및 프로젝트에 문제 없이 참여할 수 있겠다는 평가를 내려주셨다. 교환학생에게 정말 신경을 많이 써주시심을 느꼈었다.

확정이 난 이후 상대학교측에서 메일로 요구하는 서류들을 열심히 작성해서 보냈다. 서울대학교 측에서 서명을 받아야 하는 서류들도 있고 성적 증명서 등 학교에서 발급받아야 하는 서류들도 있다. 서류에 관해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메일로 언제든지 물어보라고 하셨고 정말 친절히 답해주셨다.

학교 외적으로는 스위스 대사관에 가서 학생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2-3회 방문해야하고 약 두 달의 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일찍 가봐야 한다. 비자를 받기 위해 준비할 서류도 정말 많기 때문에 헛갈리지 않게 빨리 신청을 끝내버리고 상대학교측 서류에 집중하는 것이 좋다.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충분한 잔고가 찍힌 통장잔액증명서가 필요한데, 약 6-700만원 이상은 찍혀야 하는 듯 하다. 그냥 개인 통장 잔액증명서를 가져가서 매달 부모님께 용돈을 받는다고 그랬더니 부모님 통장 잔액증명서를 요구하셨다. 그리고 간단한 영어인터뷰도 해야 하는데, 긴장할 수준은 정말 아니다. 공대로 교환 가는 경우 숙소와 공대 캠퍼스가 속한 칸톤이 달라서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도 있다. 칸톤에 대해서도 나중에 서술하겠다.

1.5. 출국 준비 및 버디 프로그램

지원 절차가 마무리되면 이제 출국을 기다리며 앞으로 외국에서 살 6개월을 준비하면 된다. 항공편은 학교 일정과 기숙사 관련 일정을 고려해서 왕복으로 끊었고 백팩, 작은 캐리어 하나, 큰 캐리어 하나를 무게 제한에 딱 맞춰 짐을 쌌다. 가져오면 좋겠다고 생각되는 물건들은 수건, 슬리퍼, 필기구, 면도기 등이 있고 굳이 가져오지 않아도 될 물건으로는 고무장갑, 수저, 샴푸 및 비누, 밥솥(보온 등 개인 보관용으로 쓰고싶다면 괜찮음) 정도를 말하고 싶다. 특히 좀 쓰다 버릴 수건이나 옷을 가져와서 버리고 가는게 돌아갈 때 짐을 줄이는 좋은 방법인 것 같다.

FHNW에서는 교환학생들에게 버디로 본교 학생과 짝을 지어 준다. 필자의 버디는 운이 좋게도 아주 친절하고 성격도 잘 맞았으며 나이도 같았다. 공항에 마중도 나와주고 이후 약 일주일간 매일 붙어다니며 이런 저런 행정 절차도 도와주고 스위스 투어도 시켜주었다. 출국 전에 버디에 대한 안내와 스위스 도착 일정 등을 묻는 메일을 받았고 이후 버디에게서 메일을 받아 What's App이라는 메신저 앱으로 채팅하며 만나기 전에 어느 정도 친분을 쌓았다.

1.6. 스위스 입국과 정착

먼저 공항에 도착하면 아마도 버디 혹은 다른 학생의 버디가 와 있을 것이고 Olten의 숙소까지 안내해 줄 것이다. 열쇠를 받고 숙소로 짐을 풀 뒤 규칙과 건물에 대한 설명을 듣고 계약서에 서명을 하고 나면 일단 잠자리는 확보된다. 거주 등록증을 발급받기 전까지는 이 계약서가 아주 중요하므로 잘 간직하고 서류절차를 진행하려 할 때 항상 소지하는 것이 좋다. 학기가 시작할 때 쯤이면 모든 교환학생들이 같은 곳에서 신청하므로 발급이 아주 늦어질 수 있고 은행 계좌를 만들 때나 어떤 계약같은 것을 할 때 거주등록증이 필요할 수 있으니 일찍 신청하는 것이 편하다. 거주등록증은 카드 형태이기 때문에 여권 대신 주민등록증처럼 가지고 다닐 수 있어 편리하다.

거주등록 과정은 인터넷에도 설명이 잘 되어있고, 학교에서도 설명을 해 준다. 하지만 그 이후에 신청하면 위에서 말했듯이 발급이 늦어질 수 있다. 초반에는 카드를 쓸 수 있는지 확인해서 가능하면 현금을 아끼는 것이 좋다. 숙소 보증금을 지불할 때나 우체국 Die Post를 통해 보험료나 행정비용을 지불할 때에는 현금만 사용할 수 있다.

스위스에 거주하기 위해서는 특정 기준을 만족하는 보험을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를 만족하는 보험으로 Swisscare를 들거나, 한국의 보험으로 인정받는 서류를 작성하는 방법이 있는데 학교측에서 깔끔하게 Swisscare를 드는 것이 좋다고 해서 그렇게 했다. 그런데 정확한 이유는 모르겠으나 모든 교환학생들이 보험과 관련된 이유로 Olten이 속한 칸톤인 Kanton Solothurn에 100프랑을 추가로 지불해야 했다. 거주등록증을 받은 이후 몇 주 뒤에 100프랑을 지불해야 하며 기한을 어길 시 이자가 붙는다는 편지를 받았다. 입국해서 초기에 정착하는 동안 편지 및 이메일을 잘 확인하고 특히 내야할 돈은 제때 잘 내야 탈이 없다. 편지나 이메일이 독일어로 오는 경우가 많은데, 잘 이해가 되지 않을 경우 학교측 담당자에게 문의해보는 것이 좋다.

1.7. 결제수단

기본적으로 신한글로벌멀티카드를 주로 이용했고, 현금으로는 스위스프랑과 유로를 환전해 갔다. 유럽 쪽을 여행할 계획이다 보니 유로도 환전했으며 현금으로만 할 수 있는 것들이 있어 유용했다. 그러나 대부분 카드를 받기 때문에 해외 수수료가 적은 카드가 있다면 그렇게 많은 돈을 환전할 필요는 없을 것 같다. 다만 스위스에서 정착시 현금으로만 할 수 있는 일들이 있기 때문에 약 300-400프랑 정도는 준비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후 교통비를 현금으로 지원받기 때문에 정착 이후에도 현금을 적절히 사용해 주어야 한다. ESN에서 주최하는 행사들은 현금으로 내야 하는 경우가 많다.

UBS 은행 계좌를 개설할 경우 계좌이체, V-PAY 카드, 선불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구조가 약간 복잡한데, 일단 계좌이체는 UBS에서 주는 특수 장치와 전용 카드, 그리고 웹사이트나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해 할 수 있다. V-PAY 카드는 UBS 계좌와 연결된 체크카드같은 개념으로, 처음 사용한 이후 contactless로 사용가능하다. 선불카드(prepaid card)는 거의 비슷한데 전용 계좌가 따로 있어 해당 계좌를 충전하여 사용하는 방식이다. Twint 라는 앱을 설치하면 마치 토스처럼 쉽게 송금하고, 결제도 폰으로 가능하지만 아이폰 사용자라면 UBS Twint는 스위스 계정으로만 설치가 가능한 것 같다. 카드 및 핀코드를 우편으로 보내주기 때문에 UBS에서 날아온 우편은 꼼꼼히 읽어보는 게 좋다.

스웨덴, 노르웨이, 덴마크, 헝가리 등의 나라들은 유로가 아닌 본국 화폐를 사용하는데, 이들은 신한글로벌멀티카드에 없다. 이경우 환전을 하면 되겠지만 북유럽 국가들은 현재 현금 없는 사회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현금으로 결제하면 더 비싸거나 현금 결제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다. 이를 대비하여 해외결제수수료가 낮은 카드를 더 가져오는 것이 현명할 듯 하다. 신한글로벌멀티카드로도 결제는 가능하지만 환전수수료를 5%나 받기 때문에 좋은 선택은 아니다. 신한글로벌카드로 결제할 때 해당 화폐에 잔액이 없다면 다른 화폐의 잔액에서 환전하여 결제되며 이때 5%의 추가 수수료가 발생한다.

2. 학교 생활 및 학업

2.1. 숙소

학교에서 교환학생들에게 기숙사의 개념으로 제공하는 숙소는 Olten이라는 도시에 있는 병원 Kantonsspital Olten의 Staff House이다. 이름 그대로 병원에 근무하는 분들이 머무는 곳이며, 그중 약 5개 층이 교환학생들에게 배정되어 있다. 필자는 13층에 배정받았는데, 이 정도면 스위스에서 상당히 높은 층으로 마을을 내려다 볼 수 있다. 건물은 14층까지 있고 발코니가 있는 방들은 경치가 좋으며 (저 멀리 알프스 산맥이 보인다) 겨울에는 추가 냉장실을 얻는 셈이라 기숙사 신청 서류에 꼭 발코니가 있는 방으로 해 달라는 요청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다.

방에는 책상과 의자, 스탠드가 있어 공부 등의 작업을 하는데 문제가 없고 폭신한 의자와 낮은 테이블이 있어 휴식을 취할 수도 있다. 세면대와 거울, 그리고 거울 뒤의 수납 공간이 있어 방에서 양치질이나 세수 등을 할 수 있고 수돗물을 마실 수도 있다. 그리고 방 안에 옷을 보관할 수 있는 방이 따로 있는데, 안에 선반과 옷걸이 봉이 있다. 옷을 많이 안 가져가서 그런지 널널하게 사용했다. 문을 열면 자동으로 불이 켜지는 멋진 공간이다. 냉장고는

꽤 작아서 냉장보관을 해야 하는 식품들은 한 번에 많이 살 수 없다. 또한 냉동실이 없는 냉장고가 걸릴 수도 있다. 얼음을 만들 수 없다는 것이 많이 아쉬웠다. 창문 손잡이를 90도 돌리면 옆으로 활짝 열 수 있고, 180도 돌리면 위 쪽을 열어 환기를 시키는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데, 방충망은 없다. 실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커튼으로 얇은 그물 형과 암막 두 가지가 있고 바깥에 블라인드가 있다. 블라인드는 실내에 있는 장치를 통해 조작 가능하다. 방들 사이에 방음은 잘 되는 편이다. 방은 아주 만족스러웠고 수납공간이 꽤 많아서 좋았다.

각 층에는 부엌 하나와 화장실 하나가 있는데 화장실에는 변기 3개와 샤워실 하나, 욕조 하나(샤워기가 있어 샤워실로도 이용 가능), 공용 세면대 하나가 있다. 화장실은 Staff house 측에서 항상 깔끔하게 청소해준다. 부엌에는 개인사물함이 있고 공용 식기들이 있다. 테이블과 의자, 전기레인지, 전자레인지, 오븐, 커피포트, 심지어 전기 밥솥까지 있으며 층마다 가지고 있는 특수 조리기구들이 조금 다르다(채, 국자 등). 개인이 사서 그냥 같이 쓰는 듯하다. 사용 후에는 항상 깨끗한 상태를 유지시켜야 하며 세제는 기본 제공 물품이 아니므로 알아서 구해야 한다. 고무장갑은 아무도 사용하지 않고 다들 맨손으로 설거지를 했다. 설거지 후에는 그냥 건조대에 올려 두지 말고 다음 사람이 이용할 수 있게 식기의 물기를 잘 닦아주는 것이 좋다. 한 층을 최대 14명이 사용해 부엌에서 자주 만나게 된다.

약 3주마다 각 층에 침대 시트 및 이불, 베개 커버를 새로 공급해 주며 지하에는 세탁기 및 건조기, 건조실, 분리수거실이 있다. 건조실에 빨랫줄과 건조한 바람이 나오는 장치가 있어 사실상 건조기는 필요가 없다. 세탁기는 돈을 넣고 사용하며 보통 1.20프랑정도면 42분정도를 돌릴 수 있다. 세탁기의 전원을 통제하는 기계가 있는데 동전을 넣게 되면 그만큼 기계에 시간이 추가되며, 남은 시간이 0이 되면 전원이 차단된다. 그리고 세탁기의 문을 열기 위해서는 전원이 연결되어있어야 하며 이는 곧 빨래가 끝날 때 쯤 와서 전원이 차단되기 전에 빨래를 수거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리고 시간이 남아있는 상태에서 전원을 끌 수가 있는데, 그러면 남은 시간이 저장되니 다음 사람을 위해 신속히 빨래를 꺼내고 전원을 꺼 두면 좋다. 건조기도 비슷한 방식으로 돈을 넣고 사용하지만 한 번도 안 써봤다. 무료로 쓸 수 있는 탈수기가 하나 있는데, 가끔 넣은 돈이 아주 약간 부족해서 1-2분 차이로 세탁기가 꺼질 것 같을 때 급히 세탁중지 후 탈수기를 쓸 때가 있었다.

각 층의 부엌 서랍에 쓰레기봉투가 제공되어 부엌과 개인 방에서 사용할 수 있다. 어느정도 차거나 냄새가 나면 묶어서 각 층 베란드의 쓰레기봉투 버리는 구멍에 넣으면 된다. 분리수거는 지하 1층에서 할 수 있고 PET병, 유리병, 캔, 종이로 나누어져 있다. 스위스는 자원이 많이 나지 않아 재활용을 열심히 한다고 한다.

스위스는 규칙을 지키는 것에 있어 엄격하다고 하는데, 그래서인지 부엌 청결 검사를 엄격히 하며 그 외 여러 규칙들을 강조했다. 밤 10시 이후에 시끄럽게 하다 누군가 신고를 하면 경고를 받고 퇴거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숙소에 교환학생들만 사는게 아니다. 규칙을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2.2. 우편물 수령

크기가 작은 우편물들은 건물 지상층(EG; 유럽의 1층은 한국의 2층과 같다)의 우편함으로 전달되어 방 열쇠로 열어서 볼 수 있고, 크기가 큰 경우 옆의 병원 건물에 가서 받아올 수 있다. 본인이 직접 수령해야 하는 경우 가까운 우체국 Die Post로 보내지며 신분증을 지참하여 직접 수령해야 한다. 이 경우 언제까지 수령하라는 편지가 우편함으로 날아온다. 그 기한을 지키지 못할 것 같다면 우체국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메시지를 보낼 수 있으며, 상황을 설명해 주면 기한을 연장시켜준다. 정착 초기에 우편물 받을 일이 많으니 매일 확인해 주는 게 좋다. UBS 계좌를 개설했다면 정말 많은 우편물을 받게 될 것이다.

2.3. 교통

공대 건물은 Windisch라는 곳에 있으며 Brugg라는 도시의 경계에 붙어있어 Brugg-Windisch campus라고 불린다(사실 Brugg는 Windisch가 속한 Bezirk-district의 이름이며 Brugg는 그 Bezirk의 중심도시이기도 하다). 등하교를 위해서는 Olten역과 Brugg AG역 사이를 오가야한다. 이에 해당하는 기차표 값을 FHNW에서 지원해주며, 현금으로 주기 때문에 꼭 해당 기차표를 살 필요는 없다. 보통 30분정도면 갈 수 있고, 아침 8시 수업을 듣는다면 기차에 사람이 많아 앉을 자리를 찾지 못할 수도 있다. 만약 스위스에서 여행을 많이 다닐 생각이라면

스위스 내의 거의 모든 교통편을 무제한 이용 가능한 GA Pass를 이용하는 것이 좋다. 매달 지원받는 기차표 값이 187프랑인데, GA Pass는 매달 245프랑이므로 매달 58프랑(약 6만원)이면 스위스를 자유롭게 돌아다닐 수 있고, 산악열차와 같은 특수교통편을 할인받을 수도 있다. GA Pass에 대해서는 이후 더 자세히 서술하겠다.

숙소 방에서 Olten역까지는 도보로 20분이면 충분하며, 버스를 이용할 경우 8분정도 걸린다. Brugg역에서 나오면 바로 앞에 학교가 있어서 학교 다니기는 정말 편하다. 기차편도 자주 있어서 교통은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이후 특별한 언급이 없다면 학교는 Brugg-Windisch campus를 가리키는 것이다. 대부분의 교환학생들은 Olten campus에 다니며 수업 형태나 행정 절차들도 조금 다르다. 참고로 Brugg는 Kanton Aargau에, Olten은 Kanton Solothurn에 속해 있다.

2.4. 학교 시설

건물들이 세련되고 깔끔한 디자인으로 되어있고, 각 층에는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책상들이 있으며 프린터, 자판기, 전자레인지 등이 구비되어 있다. 강의실 번호는 [건물번호].[층][방향문자][방번호] 로 되어있는데 사각형 건물의 각 변에 A, B, C, D의 문자를 할당하여 6.4D53 처럼 생긴 강의실 번호를 이용한다. 이는 6동 4층 D변의 53호실 이라는 뜻이다. 서울대학교의 방식과 비교해보면 사실상 방향문자만 빼면 비슷한데, 세 달이 넘도록 강의실을 외우지 못했다. 이유를 생각해 봤는데 서울대학교에서는 강의마다 건물 번호가 다른 경우가 많았고 다른 번호의 건물은 주로 위치와 구조가 달랐다. 이는 곧 각 강의실을 찾아가는 길이 크게 다름을 의미하고 따라서 각 강의에 대해 강의실을 찾아가는 길의 초반까지, 즉 건물의 위치까지만 외워도 그 이후는 어떤 강의에 대한 강의실인지에는 무관하게 해당 건물의 항상 가는 강의실로 찾아가면 된다. 하지만 필자가 들었던 FHNW의 강의들은 대부분 5, 6동에서 진행되었고 심지어 이 두 건물은 모든 층에서 연결되어 있으며 구조가 똑같았다. EG층과 도서관 등의 특수한 공간을 제외한 1-4층까지의 구조가 같고 연결된 건물이다 보니 강의실 번호를 외워야 했는데 마음먹고 단어 외우듯이 외우지 않는 한 절대 외워지지 않을 것 같았다. 그래도 방향문자가 있다 보니 확실히 강의실 번호를 받고 강의실을 찾아가는 것은 쉬웠다.

학생증 카드를 받으면 문이 잠기는 밤이나 주말 시간대에 학교 건물을 출입할 수 있고, 카드에 돈을 충전해 교내식당에서 밥을 사 먹거나 커피 자판기를 이용할 수 있다. 학생할인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학생증 카드로 결제해야 하며 가격은 할인해서 8.50프랑이다. 메뉴가 몇 가지 있는데, 스페셜 메뉴는 더 비싸다. 물을 마시고 싶다면 식사 결제 이후 초록색 컵에 수돗물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이용하면 된다. 프린터를 이용할 때 역시 해당 카드를 이용하여 학교 이메일 계정과 연동되어 있다. 학교 이메일 계정으로 drucker.windisch@fhnw.ch로 파일을 보내고 프린터에서 파일을 선택해 인쇄하면 된다. 물론 공짜는 아니다. 이 외에도 식당 앞의 카페에서도 학생증 카드를 이용할 수 있다.

와이파이는 eduroam을 사용할 수 있고, 건물 내 거의 모든 곳에서 잘 연결된다. IT 서비스 센터가 있으니 기술적인 도움이 필요하면 가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캠퍼스 내에 Coop이 있고, Brugg역에는 Denner, Coop, Migrolino, 그리고 큰 Migros가 있다. 주말에는 스위스의 여느 가게들처럼 캠퍼스 Coop이 문을 닫기 때문에 역에 있는 Coop을 이용해야 한다. 이런 곳에서 식사를 해결하는 것도 경제적이고 간편하다. 캠퍼스 근처에 Subway가 있으며 학생증을 보여주면 할인 메뉴를 먹을 수 있다. 또 케밥 및 피자를 파는 가게도 있는데 현금만 받는다.

2.5. 학업

학기는 가을학기 기준 9월 중순부터 다음해 2월 중순까지로 상당히 길며, 중간에 방학인 주가 몇 개 있다. 총 15주이며 1학점은 한 학기에 수업 15시간과 과제 및 개인 공부 15시간이 필요한 정도를 의미한다. 대부분의 전공 수업은 3학점이며 영어나 독일어 등의 교양 수업은 2학점인 경우가 많다. 총 15학점 이상 들을 경우 학교에서 숙소비를 지원해주며 매달 직접 내지 않아도 되어 아주 편하다. 필자는 7과목으로 총 19학점을 들었는데 월, 화, 수, 요일에 모든 강의를 넣고 나머지 4일은 여행을 가거나, 쉬거나 공부하는 데 사용했다. 4일이면 다른 나라를 갔다 올 수 있는 시간이며, 스위스의 곳곳을 여행하기도 적당하다.

일반 수업 외에 프로젝트가 있는데, 프로젝트를 하게 될 경우 여행에 많은 시간을 투자하기가 어려워진다. 미팅이 자주 잡히고, 계속 작업을 해야하므로 다른 수업을 따라가기에도 지장이 있다고 한다. 물론 여행을 못 가는 것은 아니지만 수업들을 따라가면서 여행도 즐길 수 있는 여유는 없다. 그러나 학교에서 프로젝트를 매우 강조하며 중요시하는 만큼 좋은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스위스의 기업들과 같이 진행하며, 교환학생을 위해 특별히 설계된 프로그램이 있어 프로젝트에 대한 경험이 없더라도 잘 따라올 수 있게 열심히 도와주는 듯 하다. 프로젝트는 아니지만 관련 수업으로 Project Management를 들었는데, 수업날 실제로 스위스의 기업들을 방문하여 인터뷰를 하는 등의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컴퓨터공학부 학생으로서, FHNW의 컴퓨터공학 수업들은 서울대학교와는 중점적으로 가르치려고 하는 방향이 다르다고 느꼈다. 적어도 영어로 가르치는 수업들은 그랬다. 좀 더 실무적인, 다시 말해 실제로 프로그래밍을 하는 방법론, 그리고 다양한 오류와 문제점들이 무엇이 있고 이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많이 가르친다. 버디가 듣는 수업자료들을 보니 알고리즘, 자료구조 등의 내용도 배우며 모든 수업들이 프로그래밍에 집중하고 있음이 많이 느껴졌다. 반면 서울대학교의 전공필수과목들은 프로그래밍에 집중하기보다는 컴퓨터에 관련된 지식을 넓게 가르치려 한다는 느낌을 받았다. 컴퓨터의 기본적인 작동 방식에 대한 내용, 더 나아가 전기전자회로에 대한 내용, 수학에 기초한 내용 등 그리고 선택과목들은 더 다양하다. 물론 프로그래밍은 도구로써 거의 항상 사용되지만 프로그래밍 자체를 주재삼는 수업이 주가 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이 학교에서 프로그래밍 자체에 대해 많이 배울 수 있었고 지식이 한 층 두터워진 것 같아 기쁘다.

학점은 1.0-6.0의 형태로 주어지며, 6.0이 최고학점이다. 처음 듣기로는 절대평가로 만점이 6.0, 최저점이 1.0인 줄 알았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어느정도 상대평가에 교수님 재량이었다. 과목을 pass받기 위해서는 4.0 이상 받아야 해서 pass하는게 썩 당연하진 않다. 출석은 대체로 크게 보지는 않는 편이고 수업을 들은 시간만큼 자습에 시간을 투자해야 하므로 그에 걸맞는 과제나 생각할 거리가 나온다.

2.6. 지출

정착 비용 등을 제외하고 학교 생활하면서 드는 비용은 크게 식비를 들 수 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교통비를 어느정도 지원해주고 15학점 이상 수강하면 숙소비도 지원해주기 때문이다(GA Pass를 이용할 경우 매달 약 60프랑을 써야 한다). 다만 교통비는 5달에 해당하는 만큼만 지원해주기 때문에 그 이상 필요하다면 한 달은 245프랑을 전부 내게 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다만 결제 후 영수증을 가져가면 지원해주는 방식이며 GA Pass 외에는 반드시 Olten - Brugg 기차편이어야 한다.

식재료들의 가격은 싼 편인 것 같고, 적당히 숙소에서 요리해 먹으면 외식하는 것에 비해 크게 돈을 절약할 수 있다. 또한 밥솥이 있기 때문에 밥도 쉽게 해 먹을 수 있다. 시간표나 학교 일정 때문에 점심을 밖에서 먹어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 학교 식당을 이용하는 것이 그나마 괜찮은 가격에 식사를 해결하는 방법이다. 8.5프랑으로 괜찮은 식사를 해결할 방법을 찾기가 아주 힘들다. 간단하게 해결해도 될 것 같다면 Coop이나 Migros, Denner 등에서 빵과 샐러드를 사 먹는 방법이 있다. 빵들이 참 맛있어서 끼니를 때울 때 애용했다.

독일의 물가는 싼 편이며 맥주나 육류 등을 제외하고는 엄청나게 싸진 않다. 유로의 환율이 조금 더 높아 더 싸 보이는 느낌이 있지만, 따지고 보면 굳이 독일까지 가서 이것저것 다 사 올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맥주는 먼 여정을 감수할 만큼의 가격으로 만나볼 수 있다. GA Pass를 가지고 있다면 가까운 독일 마을에 여행가면서 쇼핑을 겸하는 것도 괜찮다.

그 외 수업을 듣기 위해 책을 구입해야 할 수도 있는데, 영어 수업을 제외하고는 그런 경우를 보지 못했다.

3. 스위스에 대하여

3.1. 칸톤 - Kanton

스위스는 총 26개의 칸톤으로 이루어져있으며, 각 칸톤은 마치 주처럼 고유의 행정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공휴일, 교육제도, 근무제도, 보험규정 등이 다를 수 있고 비자 발급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숙소와 학교 캠퍼스가 위치한 칸톤이 다른 공대생은 비자 발급시 스위스 대사관에서 어느 칸톤으로 해야 하냐고 물어볼 수도 있다. 필자의 경우 모른다고 했더니 알아서 해주신다고 하였고, 시간이 조금 더 걸릴지도 모른다고 하셨다. 각 칸톤은 고유의 깃발 문양이 있으며, 큰 도시들은 도시의 깃발 문양도 따로 가지고 있다. 그래서 깃발이 3개가 나란히 펼쳐지고 있다면 대부분 스위스 국기, 칸톤 깃발, 도시 깃발인 경우가 많다. 각 칸톤들은 중심도시가 있는데, 중심도시 이름과 칸톤 이름이 같은 경우가 많다. 유명한 이름으로는 취리히-Zürich, 루체른-Luzern, 베른-Bern 등이 있다. 스위스의 수도는 베른이지만, 의회 건물이 베른에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스위스에는 딱히 수도라는 개념이 없다고 한다.

3.2. 언어

스위스의 공식 언어는 4가지로 많이 쓰이는 순서대로 독일어, 프랑스어, 이탈리아어, 로망슈어다. 인구의 약 70%가 독일어를 쓰고, 로망슈어는 극소수의 사람들이 사용하며 거의 모든 스위스 사람들이 쓰지도, 알아듣지도 못한다고 한다. 그래서 보통 4가지 언어로 안내를 할 경우 로망슈어 외 3개 언어와 영어로 되어 있다. 가끔 영어가 스위스의 공식 언어 4가지 중 하나인 것 같은 착각이 들기도 한다. 이렇게 공식 언어가 많다 보니 의회 건물 등 나라를 대표하는 것은 라틴어를 사용하며, 스위스를 상징하는 이니셜이 CH인 것도 라틴어로 Confoederatio Helvetica이기 때문이다.

스위스의 독일어(이하 스위스독일어; Schweizerdeutsch - Swiss German)는 독일의 표준독일어(이하 독일어; Hochdeutsch - High German)와 상당히 다른데, 옛날 독일어의 흔적이 많이 남아있다고 한다. 그러나 독일어권에 사는 스위스 학생은 독일어를 학교에서 배우기 때문에 독일어도 할 수 있다. 또한 스위스에서 모든 표기는 독일어로 되어있어 독일어를 공부했다면 글은 읽을 수 있다. 그런데 독일의 독일어와 완전 같지는 않다. 예로 스위스에서는 독일어의 문자 ß를 사용하지 않고 옛날 방식 그대로 s 두 개를 사용한다. 그래서 street를 의미하는 Straße를 스위스에서는 Strasse로 쓰며 독일로 넘어갔을 때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차이점이다. 즉, 스위스에서도 공식 표기에는 독일과 거의 같은 독일어를 사용한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스위스독일어는 공식 표기에 사용되지 않고 말할 때에만 사용되기 때문에 맞춤법이 정해져 있기보다는 채팅할 때 발음에 기초해서 표기한다고 한다. 마치 우리나라의 사투리권 사람들이 표준어를 읽고 쓸 수 있으나 사투리로 대화하고 채팅하는 것과 같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또한 스위스의 각 칸톤마다 사투리가 달라서 사투리가 너무 심한 곳은 외부인과 소통이 힘들 정도라고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스위스 사람들은 독일어는 물론 영어를 어느정도 쓰기 때문에 생활하는 데에 크게 지장은 없다.

공식 언어에 프랑스어가 있기 때문인지 스위스독일어에는 프랑스어의 영향을 받은 부분들도 많아보인다. 예를 들어 '감사합니다' 라는 표현으로 danke (schön), vielen Dank 외에도 프랑스어인 merci를 정말 많이 쓰며, 독일어와 섞어 merci vielmal(s)로 쓰기도 한다. 헤어질 때 인사로도 ade를 자주 사용하는데 이는 프랑스어의 adieu와 비슷하다. 닭고기를 말할 때에도 Poulet을 사용하는 등 독일과 다른 어휘가 정말 많다. 그 외에도 숫자를 셀 때 und 대신 프랑스어의 et처럼 '에' 발음을 사용한다. 53을 말한다면 독일에서는 dreiundfünfzig인데, 스위스에서는 drüefüfzg이다. 이 또한 칸톤마다 다를 수 있다.

독일인이 스위스독일어를 들으면 이해하기가 아주 어렵다고 한다. 발음도 꽤 다르고, 어휘도 다르며 문법적으로도 약간 다른 부분이 있다고 한다. 생활에서 흔히 사용되는 표현부터가 많이 다른데, 인사말인 grüezi 정도는 알아두는 것이 좋다. 등산중에 사람을 만나면 grüezi 하며 인사를 건네는 경우가 많다.

독일의 독일어와 많이 다른 독일어를 쓰고 있긴 하지만, 표지판이나 신문, 음식 포장지 등이 모두 독일어로 적혀 있기 때문에 독일어를 공부하고 익숙해지는 데 꽤나 괜찮은 환경이라고 생각한다. 버디도 독일어를 구사할 수

있을 것이므로, 버디와 얘기해서 독일어 실력을 키우는 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필자의 경우 버디가 한국어에도 관심이 많아서 한국어를 가르쳐주고 독일어를 배우며 서로 도움을 주고받았다.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안내 방송 듣기, 물건을 살 때 독일어로 말하기 등을 시도해보면 더욱 현지에 적응하고 있다는 듯한 기분이 든다. 또한 지역 버스를 이용하다 보면 해당 지역의 사투리로 지명을 들을 수 있는데, 지역마다 어떻게 다르게 읽는지 비교해 보는 것도 재미있다. 숙소가 있는 Olten지역 사투리도 특이한 편이라고 한다(오우떠 라고 읽는 듯 하다).

여담으로, 독일의 독일어가 Hochdeutsch - High German라고 불리는 이유는, 독일에서 고도가 높은 남쪽 지역에서 쓰이는 말이기 때문이다. 영토가 넓은 독일에는 당연하게도 수많은 사투리-Dialekt가 존재하며 특히 북쪽의 평지 지역의 Plattdeutsch와 남쪽의 Hochdeutsch로 크게 나뉜다. Plattdeutsch는 지리적으로도 가까운 네덜란드어와 유사하며 지금도 사투리들이 여전히 남아있으나 표기의 표준화를 위해 표준독일어 - Standard German로 Hochdeutsch를 사용하기로 했다고 한다.

3.3. 교통

스위스는 철도가 아주 잘 깔려 있어 이동시 기차를 이용할 일이 많다. 심지어는 눈이 쌓인 산 위로도 기차가 다니며 Top of Europe이라고 불리는 융프라우요흐-Jungfraujoch도 기차를 타고 올라갈 수 있다. 스위스의 철도회사는 독일어로 SBB이며 프랑스어, 이탈리아어로는 각각 CFF, FFS이다. 그래서 기차에는 항상 SBB - CFF - FFS 라고 적혀있다. 스위스 사람들이 punctuality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긴 하지만 당연하게도 기차가 항상 제시간에 오진 않는다. 역의 전광판이나 스마트폰 앱으로 지연이나 취소, 플랫폼 변동을 잘 확인해야 한다. SBB 앱이 잘 되어 있어 어떤 기능들이 있는지 뜯어 볼 가치가 있다. 기차 뿐만 아니라 버스나 배 편까지 모두 나온다.

스위스의 교통편들을 이용하는 방법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그냥 필요할 때마다 티켓을 사는 것인데, 이것은 정말 거의 대중교통을 이용하지 않을 것이 아니면 아주 나쁜 선택이다. Olten에서 취리히 중앙역 (Zürich HB)까지는 30-40분 걸리는데 27프랑으로, 왕복으로 하면 54프랑이다. 만약 자전거를 가지고 타려고 한다면 추가요금이 붙는다. 학교에서 지원해주는 금액을 보면 한달에 등학교를 위한 기차표만 해도 187프랑인데 이것은 아마 Olten-Brugg 왕복 패스 가격일 것이고 이 왕복 패스를 사지 않으면 한 달에 7번정도 등학교가 가능한 돈이다. 그렇기 때문에 공대생이라면 Brugg에 살지 않는 이상 절대로 이 방법을 취하면 안된다. 게다가 표에 따라 다른데 어떤 표는 해당 기차편에만 쓸 수 있거나 특정 시간 안에 써야 하며 출발지와 도착지가 정해진 경우가 많으므로 만약 실수로 다른 역에 내리거나 계획이 바뀔 경우에 난처해질 수 있다.

두 번째는 Half-Fare Travelcard를 이용하는 것인데, 이는 최소 1년 단위로 계약할 수 있으며 처음 100프랑을 내고 이후 1년간 거의 모든 대중교통을 반값(일부 산 교통편은 반값보다는 비쌀 수 있다)에 이용할 수 있다. 많은 Olten 캠퍼스 학생들이 이 방법을 이용하며 1년의 절반도 쓰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처음 100프랑만 내면 되기 때문에 이득을 취할 수 있다. 대중교통 반값이라는 혜택 외에도 여행 관련 몇가지 할인혜택이 있다. 하지만 여전히 표에 의존적이라는 단점은 사라지지 않는다.

세 번째는 seven25 Travelcard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 카드는 이전에 글라이스7(Gleis 7)이라는 이름으로 많이 알려졌던 카드인데 이름이 바뀌었다.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5시까지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seven-to-five) 만 25세 이하만 구매할 수 있다. 매달 39프랑을 내야 하고, 흔히 두 번째 방법인 Half-Fare Travelcard와 같이 이용한다. 7시 이후에 페스티벌 같은 곳을 다녀오거나, 독일에 장을 보러 갔다 오거나 하는 경우에 유용하며 어딘가 놀러 갔다가 7시가 되기 전에는 집에 돌아오기 싫어지는 병에 걸리는 경우가 많다.

마지막으로 GA Travelcard를 이용하는 것이 있다. 이 카드는 편의상 GA Pass라고 자주 부르며 거의 모든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매달 245프랑이라는 어마어마한 가격때문에 다른 학생들은 잘 구매하지 않는 편이나 Olten에 사는 공대생이라면 매달 187프랑을 지원받기때문에 Olten에서 Zürich HB를 왕복하는 가격으로 한 달간 스위스를 마음껏 돌아다닐 수 있다. 최소 4개월 이상 계약해야 하며 한번에 돈을 모두 지불할 수도 있고, 매달 나눠서 지불할 수도 있다. 지불한 영수증은 반드시 챙겨두었다가 학교 행정실에 제시하여 지원금을 받아야 한다. 즉, 매월 지불할 경우 먼저 245프랑을 결제하고, 영수증을 제시하면 187프랑을 받는 시스템이다. GA Pass는 무제한 대중교통 외에도 혜택이 많다. 그중 하나로 SBB에서 세계 각국의 통화를 환전해주는 서비스가 있는데, GA Pass 소지자는 추가 수수료 없이 환전할 수 있다. 특수 산악열차의 경우 무료로 이용할 수는 없고 대

신 할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스위스를 약 일주일 이상 떠나있게 될 경우 해당 기간동안 GA Pass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중지 전에 마지막으로 쓸 날짜와 중지 후 처음으로 다시 쓸 날짜를 알려주면 된다. 중지시킨 일수만큼 다음 달 청구서에서 할인받을 수 있다. 다만 할인받아 결제한 금액이 187프랑보다 싸다면 학교에서 187프랑을 온전히 지원받지 못할 수 있다. GA Pass를 가지고 있다면 SBB 앱은 그저 교통편을 알아보기 위한 용도이며, 따로 티켓을 구매하지 않아도 된다. 혹은 앱에 GA Pass를 등록해 두고 검표를 받을 때 쓸 수 있다.

위의 모든 방법은 현금, 카드결제 모두 가능하며 travelcard 관련 업무를 보려면 역사를 찾아가는 것이 좋다. Travelcard를 구매하는 경우 SwissPass를 만들게 되는데 그 카드는 티켓검사를 받을 때 필요하고 SBB 앱에 등록시켜둘 수 있다.

스위스의 도로에는 자동차, 자전거, 트램, 버스 등이 다니며 놀랍게도 보행자의 우선순위가 실제로 가장 높다. 횡단보도 앞에 사람이 서 있으면 자동차가 거의 항상 멈춰 준다. 스위스에서는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양보할 생각 말고 그냥 건너는 것이 예의일 듯 하다. 물론 보행자가 너무 많아 차가 못 가는 경우라면 양보할 수도 있겠지만 보통 그런 곳에는 신호등이 있다. 스위스에서 횡단보도 신호등은 자동차를 위해 존재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보행자 다음으로는 자전거가 우선이며, 거의 모든 도로에는 자전거를 위한 길이 있다. 자전거는 인도가 아니라 차도의 자전거 길로 다녀야 하며 방향을 바꿀 때에는 수신호를 사용해 주변 자동차와 자전거들에게 알려야 한다. 자전거 길은 주로 차도의 양쪽에 위치하거나 가운데에 위치한다. 취리히는 도시 내에 자동차의 수를 통제하며 걷기 좋은 도시로 설계하여 자동차로 다니기에 매우 불편하다고 한다. 그럼에도 자동차가 많아 중앙역 주변의 횡단보도에는 자동 신호등이 설치되어있다. 트램들은 아주 조용히 움직이고 딱히 신호등을 따르지도 않기 때문에 트램 길을 건널 때에는 주변을 잘 살펴야 한다.

3.4. 교육

스위스의 교육체제는 대체로 취직을 목표로 잡혀있는 듯 하다.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더 깊게 공부할 수 있는 학교로 갈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고등학교부터 전공이 있으며 대부분 실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 학교를 part-time으로 다니는 것이 자연스러운 분위기이고, 회사들에서도 실무 경험이 많은 사람을 선호한다고 한다. FHNW 공대의 경우 주말에도 학교에서 자습하는 학생들을 정말 많이 볼 수 있었다. 충격적이었던 것은 크리스마스 겸 새해 맞이 2주 방학은 보통 시험 준비를 위해서 사용된다고 한다. 시험이 학기중에 약 2번 있고, 학기가 끝나면 1주의 Study week 뒤에 2주에 걸쳐 MSP라고 하여 최종 시험까지 있다. 이를 치지 않는 강좌도 있지만 대부분 전공 과목은 치는 듯 하다.

3.5. 음악

스위스에서는 힙합이 유행인 듯 하며, 밴드는 인기가 없는지 학교에서 밴드동아리를 보지도 못했고 일반인에게 열린 밴드 연습실같은 것도 없다고 한다. 음악에 대한 경험은 충분히 하지 못해 아쉽다. 스위스독일어로 가사를 만든다는 음악인도 만나봤는데 밴드의 보컬로 활동중이며 락, 재즈, 라틴 등 여러 장르를 시도하고 있다고 한다. 스위스독일어로 가사를 만든다고 강조한 것으로 봐서 그런 노래가 흔치 않다고 생각된다. 스위스를 포함하여 외국에서는 대부분 Spotify로 음악을 듣는 듯 하다.

3.6. 여가

주말이면 사람들이 등산 및 여행을 가거나, 춤 등의 취미활동을 한다. 겨울에는 설산에 가서 스키를 타거나 설산 하이킹 등을 즐길 수 있고 아이스링크에서 스케이트도 많이 탄다. 심지어 크리스마스 마켓에 아이스링크가 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겨울을 제외하고는 호수나 강에서 수영을 하거나 일광욕하는 사람들을 쉽게 볼 수 있다. 가을까지 햇살이 아주 따사롭다. 물론 클럽, 바도 많고 학교에서 클럽파티를 하기도 한다. 학교에서 열리는 클럽파티는 경비도 철저히 마약/담배 등이 전혀 없고 온전히 술과 음악을 즐길 수 있었다. 캠퍼스에 바도 있으며 건물 내에서 술을 마셔도 된다. 그 외 우리나라처럼 PC방이나 노래방은 없지만 집에서 콘솔게임을 즐기는 듯 하며 학교

의 빈 강의실을 빌려서 영화를 보기도 한다. 노래방이랑 비슷하게 Karaoke Bar라는 게 있는데, 주말 밤에 스크린에 Karaoke 영상을 틀면서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한다. Karaoke 시간이 시작되면 자유롭게 목록에 곡/아티스트명 및 신청자 이름을 적고 자기 차례가 되면 마이크를 잡고 노래를 부르는 방식이다.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술을 마시며 부르니 또 색달랐다.

그리고 흥미로웠던 것은 여러 지역에 축제가 자주 열린다는 것이다. 축제에는 크게 두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무대와 술 및 음식이 주가 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놀이기구가 주가 되는 것이다. 저번 주는 여기에 놀이공원이 생겼다가 다음 주는 저기에 놀이공원이 생기는 식이다. 특히 크리스마스 기간에는 온 유럽에 크리스마스마켓이 열리며 다양한 음식과 술, 그 외에도 정말 다양한 종류의 물건을 판다. 하지만 무엇보다 하이라이트는 우리나라에 뱅쇼-Vin chaud라고 알려진 Glühwein이다. 와인을 오렌지나 레몬같은 과일과 함께 가열해서 따뜻하게 마시는 것인데, 도수도 높지 않고 따뜻해서 겨울에 마시기 딱 좋다.

3.7. 음식

스위스 하면 떠오르는 유명한 음식은 아무래도 치즈와 초콜릿일 것이다. 실제로 마트에 가보면 치즈와 초콜릿 종류가 엄청 다양하게 있다. 그리고 치즈는 한국에서 일반적인 슬라이스 형태가 아닌, 대부분 굵은 통치즈 형태로 판다. 그리고 풍류 역시 유명한데, 치즈를 녹여 빵이나 감자를 찍어 먹는 것이다. 재미있는 규칙이 있는데 찍어먹으려다가 치즈에 빠뜨리면 벌칙을 수행해야 한다. 길거리나 산에서 소들을 정말 많이 볼 수 있고, 산 속 작은 집에서 치즈를 팔기도 한다.

풍류 외에도 치즈 관련된 음식으로 Raclette가 있는데, 전용 치즈 및 팬이 있어 역시 치즈를 가열한 다음 고기나 채소, 감자 등에 부어 먹는 방식이다. 맥도날드에도 우리나라에 불고기버거가 있듯이 스위스에는 Raclette 메뉴가 있다.

학교 식당에서 먹었던 일반적인 요리는 간단하게 고기류, 채소류, 탄수화물의 조합이 대부분이었다. 또한 스위스 전통 음식으로 Rösti가 있는데 이는 감자를 채썰기하여 부친 감자전, 혹은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만들어진 모든 형태의 요리를 통칭하는 듯 하다. 스위스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마트에서 팩을 사면 그냥 팬에다 구워서 먹을 수도 있다.

술은 독일처럼 맥주가 많고, Feldschlösschen이라는 회사의 맥주가 주를 이루는데 브루어리가 성의 형태를 하고 있어 Rheinfelden에 있으니 한번 가보는 것도 좋고 견학도 가능하다. 그 외에도 Chopfab 등 좋은 맥주들이 있고, 독일, 벨기에 등에서 수입된 맥주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역시 맥주는 독일에서 사는게 종류도 많고 가격도 싸다. 그 외 와인도 다양하고 한국보다 싸게 구입할 수 있으며 술은 아니지만 Rivella라는 음료도 유명하다.

그리고 스위스는 물이 깨끗해서 마시지말라는 경고가 붙어있지 않는 이상 수도꼭지 및 분수(약수터같이 생긴 것)에서 나오는 물은 다 마셔도 된다. 길거리 분수의 물을 마신다는 게 처음엔 어색했는데 지내다 보면 정말 편하다. 새해 첫날에는 Basel의 한 분수에서 와인을 나오게 해서 마신다고 한다. 그렇다고 등산하다가 계곡이나 강물을 마시는 것은 위험하다. 산에는 대부분 소나 염소 등을 키우며 이들의 변이 씻겨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대장균을 먹게 될 수 있다. 그런데 다른 유럽을 포함하여 우리나라도 수돗물을 마셔도 된다고 한다.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이 석회성분을 심각하게 걱정하는 편인데, 이게 걱정된다면 생수를 사서 마시면 된다. 그런데 확실히 유럽의 물에 석회성분이 더 많은 것 같다.

3.8. 등산

산과 호수, 강이 많아 산책이나 등산을 가는 사람들이 많고, 그만큼 등산 및 산책로가 정말 잘 되어 있다. 보행자를 위한 길은 모두 Wanderweg 표시가 되어있고 이정표도 잘 되어 있다. 모두 같은 디자인으로 되어 있어 스위스의 상징중 하나로 봐도 될 정도다. 보행로 표시에 그려진 사람은 등산객처럼 배낭을 메고 스틱을 짊고 다니는 모습인데, 이게 등산로는 물론 도로변이나 강변 등 아무 보행로에나 다 있다. 스위스 사람들한테는 등산로나 강변 산책로나 다 같은 보행로인 건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3.9. 기타

스위스에서 살다 보면 간혹 시끄러울 수도 있는게 교회들이 종을 너무 많이 친다. 새벽에는 잘 모르겠으나 자정에도 타종을 하며 아침 7시에도 들었다. 정각은 물론이고 15분마다 또 종을 친다. 매시 15분에 한 번, 30분에 두 번, 45분에 세 번 친다. 시간약속을 중시하는 스위스의 문화때문인지는 모르겠으나 가끔 시끄럽게 느껴질 때도 있다. 여기에 카우벨 소리까지 더해지면 정말 끔찍하다. 울타리 안의 소들은 카우벨을 달고 있는데, 움직일때마다 소리가 나서 여러 개의 카우벨 소리가 뒤섞이면서 교회 종소리까지 울리면 귀속이 혼란스러워진다. 움직일때마다 목에서 종소리가 나는 소들은 스트레스를 받지 않을까 걱정이 되었다.

스위스를 포함해 유럽에서는 설거지 후 그냥 말리는 게 아니라 바로 닦아서 정리한다. 그냥 건조대에 두면 석회 성분 때문에 물이 고여있던 곳에 하얗게 자국이 남아 그런 것 같다. 이건 좀 불편한 것 같다. 닦는 천을 깨끗하게 유지하기도 힘들 것 같다. 그리고 설거지를 할 때 고무장갑을 사용하지 않고 맨손으로 한다.

4. 교환학생을 마치며

반년간의 교환학생 기간 동안 새로운 환경에서 많은 경험을 할 수 있었다. 스위스를 선택한 가장 큰 이유였던 산과 호수들도 많이 돌아봤고, Duolingo라는 앱을 이용해 독일어 공부를 계속했으며 유럽에서 15개 이상의 나라를 여행했다. 다들 붙어 있고 오래된 건물이며 비슷비슷한 듯 보여도 각 나라마다 특색이 느껴졌고 때로는 사람들의 태도나 거리의 모습, 언어 등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막연하게 먼 곳이라 여겼던 유럽을 돌아보면서 좀 더 눈이 넓어지게 되었고 한편 우리나라를 많이 여행하지 못한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다. 북극지방에서 오로라도 보고, 좋아하던 북유럽의 아카펠라 그룹들도 만나보고, 무엇보다 물가가 비싸 여행으로는 1주조차 머물기 힘든 스위스에서 학교의 지원금 덕분에 5달동안 마음껏 기차를 타고 돌아다니며 이곳 저곳을 봤다는 게 정말 좋았다.

세계 각지에서 온 교환학생들과도 친해지며 각 나라의 문화나 삶의 모습에 대한 이야기도 해 보았고 결국 생각하는 건 똑같구나 하는 부분도 많이 느꼈다. 타지에 왔다는 같은 처지의 사람들끼리 모여 있어서 그런지 같이 술을 마시며 깊은 주제에 대해서도 쉽게 이야기가 나왔는데, 영어를 사용하니 더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또한 존칭 및 높임 표현이 없다는 영어의 특성상 나이 차이가 꽤 나더라도 정말 친구처럼 편하게 대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좋았다. 부엌에서 만나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각 나라의 언어도 조금 소개해주고, 요리를 해주기도 했다.

특히 유럽 친구들은 보통 프랑스어, 스페인어, 독일어를 다 어느 정도 할 줄 알았고 필수로 외국에서 몇학기 이상을 보내야 하는 경우가 많았다. 특히 스페인어는 멕시코, 페루 등 쓰는 나라가 많아 자주 들을 수 있었다. 프랑스어를 공부한 친구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이 프랑스어는 정말 어렵다는 것이었다. 10년 넘게 공부했지만 아직도 프랑스어를 할 줄 안다고 못하겠다고 한다. 네덜란드 친구 덕분에 네덜란드어에도 관심을 가지게 되었는데, 마치 독일어와 영어 사이에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 Plattdeutsch와 비교하면 더욱 그렇다. 솔직히 독일어 명사에서 3개의 성(남성, 여성, 중성) 구분은 불필요하다고 느꼈는데 네덜란드어에서는 남성과 여성을 통합시켜 총 2개의 성으로 만들고 격변화를 없앴다. 어휘도 비슷해서 두 언어권 사람들은 서로 언어를 빨리 배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런 다양한 언어를 보며 영어에 대한 생각도 많이 해봤는데, 정말 영어만큼 발음이 불규칙적인 언어가 없다. 단어에 성도 없고 격도 없고 문법이 쉬운 것은 맞으나 다른 유럽 언어들과 달리 동사의 기본형에도 규칙이 없고(예로 독일어의 동사 기본형은 -en 어미) 처음 보는 단어가 주어졌을 때 이걸 어떻게 발음할지, 품사는 무엇인지 알아보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는 영어가 문법적으로 독일어 및 네덜란드어와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으나 라틴 언어들에게서 수많은 어휘가 들어왔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다양한 외국어를 많이 접하며 이런 저런 생각을 하다 보면 한국어가 모국어라는 게 행운이라는 생각이 자주 들었다. 유럽권 언어에 비해서 한국어는 아주 말랑말랑하다는 느낌이 든다. 어떤 중심정보를 전달하기 위해서 화자가 표현하고 싶은 느낌이나 감정에 따라 정말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특히 격변화가 없는 영어의 경우 어순이 엄격해서 더 딱딱하게 느껴지는 것 같다. 또한 다양한 느낌과 감정을 나타내기 위한 어휘도 풍부해 한국어가 모국어 아닌 이상 이러한 느낌을 모두 공감하고 표현하기가 힘들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렇듯

표현이 너무 다양하고 문법과 어휘가 완전히 새롭다는 것, 심지어 한자 단어들을 정말 많이 사용하면서도 문자는 한글을 쓰니 같은 음에 수많은 뜻이 있다는 게 정말 어려울 것 같다.

독일어를 공부하다 보면 영어에서는 느낄 수 없던 한국어와 비슷한 점들을 찾을 수 있어 흥미로웠다. 일단 발음이 아주 규칙적인 편이고, 이미 있는 단어들을 이어붙여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는 방식이 꼭 한국어같았다. 영어에서는 띄어쓰기를 하는 것이 보통인데 독일어는 그냥 한 단어로 붙여버린다. 다만 한글처럼 공간을 효율적으로 쓰지 않고 알파벳으로 늘여쓰기 때문에 단어가 굉장히 길어질 뿐이다. 그래도 발음이 규칙적이고 이미 알던 단어들에 눈에 보여 읽는데 크게 어렵지는 않다. 이런 방식은 뜻을 짐작하는 데에도 큰 도움을 준다. 어순같은 경우에도 조동사같은게 들어오면 본동사가 맨 뒤로 가며, 그 사이에 시간, 장소, 목적어 등의 정보가 마치 한국어의 어순과 비슷해서 신기했다. 또한 우리말의 조사와 비슷하게 격변화가 있기 때문에 동사를 제외하고 어느정도 어순이 자유로우며 이를 통해 특정 부분에 강조 효과를 줄 수 있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명사의 성과 격변화에 익숙해지고 나면 독일어를 공부하는게 꽤나 재미있다고 생각한다. 독일어의 큰 특징 중 하나가 대명사가 아닌 명사는 반드시 대문자로 시작한다는 것인데, 이게 문장을 읽는데 크게 도움이 된다.

이 외에도 수많은 생각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다양한 사람을 만나며 여러 생각을 나누고, 나를 돌아볼 수 있었다. 특히 한국 및 세계의 역사를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고 앞으로도 비슷한 기회가 생겼으면 좋겠다. '세계' 라는게 막연히 크고 멀게만 느껴졌었는데, 그 거리가 꽤나 좁혀진 것 같고 앞으로는 좀 더 넓은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 이토록 귀하고 멋진 기회를 제공해주신 공과대학 대외협력실과 실로 큰 보탬이 되었던 장학금을 지원해주신 공과대학 총동문회 분들께 정말 감사하다는 뜻을 전하고싶다.

